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3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2일 (음력 5월 19일) 월요일



## Photo 漫評

### 교훈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50%선이 붕괴됐다. 리얼미터는 지난 25~27일 실시한 주중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10.1%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직후 9.6%(2017년 5월 2주)를 기록한 0.4% 지난 1년간 5~8%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은 야당의 일부 지지층을 흡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같은 기간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3%포인트 급락한 47.8%에 그쳤다.

리얼미터 측은 "정의당은 수도권, 2대, 진보·중도층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글=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스시스



노회찬



김성태



심상정

##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의장-상임위원 '사전 경선' 논란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주시의원들이 제8대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미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사전 경선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 검증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비민주당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9~23일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를 소집, 전반기 2년간 의회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과 등록후보자 공고를 거쳐 정경발표와 투표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19일 오전 10시,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

시의회 공식 일정에 앞서 '우리까지 선거' 진행 의장, 부의장, 5개 위원장 후보등록-정경발표도 "의회 민주주의 역행, 비민주당 의원 뒷전" 지적

건설·교육문화 등 4개 상임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운영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23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의장에게는 광역의회 수장에 걸맞게 넓따

른 직무실과 전용 차량, 운전기사, 수백미터 등이 제공된다. 품위 유지와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해 의장에게는 월 400만원, 부의장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 상임위원에게는 100만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도 주어진다. 회의소집과 취소, 법안 상정권도 지닌다.

이런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통해 23석 가운데 22석을 싹쓸이한 민주당 당선인들 사이에 사전 경선이 진행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지난 25~27일 사흘간 광주시당에서 회의를 갖고 제8대 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초선 5명을 준비위원으로 하고 지난달 28, 29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과 등록공고까지 마쳤다.

후보자들은 오는 3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6일 정경발표와 집의응답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후보기에 입후보하지 않고,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 맡고, 준비위원 5명은 상임위원장 등을 맡지 않는 대신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등에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반기 의장과 부의장 출마자들은 같은 기간, 즉 상반기에 체급을 낮춰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큰 틀에서 자체 경선까지 정해진 셈이다.

후보 등록 결과,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3명, 행정위원장은 2명, 나머지 4개 위원장은 단독 출마했다.

이번 사전 경선은 전체 의원의 96%가 민주당 의원들이어서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여 모를 자중지란이나 감투싸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자체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22석 중 21석을 차지한 7대 의회 당시 의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 나뉘며 논란이 일었던 전례를 의식한 재발 방지를 교통정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버젓이 의회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의회 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한 사전 경선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미리 나눠 갖는 식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고 의회 역할을 무시한 처사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당 패싱도 도미에 올랐다. 정당 득표 2위로 선출된 정의당 의원과는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나 협의도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해당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주요 보직을 미리 정해 버리고 다수당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결국 의회 내 건강하고 민주적인 선거 풍토가 훼손되고,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의회민주주의를 의식하지 않은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신봉우 기자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Beautiful Yeosu, Happy Citizens

스포츠 733  
일요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 제27회 전라남도지사기 및 제5회 전라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여성게이트볼축제

2018. 7.10 (화)~11(수)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경기장

개회식	7.10.(화) 오전 10:30, 진남경기장
일시	(1일차) 2018년 7월 10일 (2일차) 2018년 7월 11일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경기장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주체/주관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여수시게이트볼협회
후원	전라남도체육회, 여수시, 여수시체육회



목포항 대피 어선과 어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1일 오전 한 어민이 전남 목포항에 대피한 어선들을 바라보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은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태풍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철저”

기상청, 오늘부터 이틀간 직접 영향 전망...전남농기원 요령 발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예상 진로상 2~3일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1일 밝혔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논두렁과 하천 제방 등을 점검 정비하고 집중호우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논은 논두렁은 물꼬를 낮게 조정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벼는 신속하게 물을 빼주고 흩어 붙은 벼는 씻어 주며,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물 갈아주어 뿌리의 활력을 높여준다.

고추, 콩 등 밭작물은 습해를 방지 않도록 배수로를 깊게 정비한다. 밭작물은 비가 내린 후에는 각종 병 발생이 많이 일어나므로 친환경적용 약제로 방

제한다. 토양 유실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풀, 빗짚 등을 피복해 토양유실을 방지한다.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바닥에 보관중인 사료는 높은 곳으로 옮겨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

가축분뇨 저장시설과 퇴·구비장의 배수구를 점검하여 빗물이 들어가지게 오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집중호우 후에는 가축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축사소독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한다. 시설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우스, 축사 등 각종 농업시설물은 비바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대비 한다.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비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밀폐 후 비닐끈으로 고정한다.

서은홍 기자